

신라 중대 冊封號 授受의 배경과 의미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Appointment titles of the King and Queen in the Shilla Dynasty Middle-Age period

저자 (Authors)	이현주 Lee, Hyun-ju
출처 (Source)	신라문화 55 , 2020.2, 153-179 (27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5 , 2020.2, 153-179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596
APA Style	이현주 (2020). 신라 중대 冊封號 授受의 배경과 의미. 신라문화, 55, 153-17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01 13: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중대 冊封號 授受의 배경과 의미

이 현주*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신라 왕실여성 책봉의 배경과 의미 |
| II. 신라왕의 책봉호와 나당관계의 변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7세기 동아시아의 전쟁과 외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맞물린 결과였다. 나당전쟁 이후, 경색되었던 나당관계는 당조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신라 중대 왕실의 적극적인 唐制 수용과 맞물려 완화되었다. 성덕왕 이후, 나당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중대왕실이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당의 율령과 예제를 도입하였던 것은 우호적인 나당관계의 내부적인 요건이 되었다. 또한 효소왕대의 발해 건국, 성덕왕대의 당현종의 즉위, 발해의 등주 공격은 그 외부적인 요건이었다. 이처럼 당과 신라 간의 조공-책봉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다.

성덕왕은 재위 36년 간 총 46회의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견당사는 외교사절이자, 공적 무역의 매개자였고, 문화 교류의 통로였다. 성덕왕은 견당사 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나당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덕왕 이후 나당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이는 신라왕의 책봉 외에 신라의 왕실여성의 책봉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책봉제를 수용하였고, 이를 상층 여성들, 즉 왕실여성과 귀족여성들에게 적용하였다. 왕비와 왕후를 책립하여 그 지위를 공식화하였고, 출궁으로 인해 왕실여성에서 귀족여성으로 강등당한 경우나 귀족여성의 포상 등에는 지위와 봉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시간강사

토에 해당하는 하사품을 하사하여 책봉하였다. 이처럼 중대 왕실은 책봉의 형식을 통해 왕실여성과 진골귀족여성 간의 위상 차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신라 중대에 당조가 신라왕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실여성도 책봉한 사례가 2건이 보인다. 하나는 효성왕대의 신라왕비 책봉이고, 다른 하나는 혜공왕대의 신라왕대비 책봉이다. 당이 신라왕비를 책봉한 것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이 신라왕비와 왕대비를 책립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중대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성덕왕 이후의 견고한 나당관계, 당 내부의 통치력 약화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신라의 왕실여성의 책립 요청과 당조의 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제어 ● 조공책봉관계, 나당관계, 책립체계, 성덕왕, 책봉호 신라왕 왕대비, 왕비, 왕실여성, 귀족여성

I. 머리말

冊封은 중국 영토 내의 왕과 제후 관계, 중국 영토 밖의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공인하는 통치의 수단이었다. 중국의 통치제도는 周의 봉건제-秦의 군현제-漢의 군국제로 이어졌는데, 한의 군국제는 봉건제와 군현제가 통합된 형태였다. 즉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은 군현제, 그 외의 지역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체제이다.¹⁾ 봉건제에서 冊封은 冊命封爵을 일컫는데, 왕이 제후에게 등급에 맞는 爵位와 封土를 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地位, 즉 稱號만 하사하는 경우, 冊立이라 한다. 중국의 책봉제는 중국 내부의 통치 방식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도 활용되었다. 漢은 주변국의 왕을 군신이나 제후로 冊封하고, 작위와 봉토를 수여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후대 왕조도 계승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 수당과 주변제국의 국제관계는 당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 조공-책

1) 西島定生은 한의 군국제는 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가 혼합된 것이고, 한의 군국제가 외국에까지 확장된 형태가 ‘책봉체제론’이라고 하였다(西島定生, 『西島定生東アジア史論集 第三卷-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東京: 岩波書店, 1962).

분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²⁾ 이는 동아시아의 국가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단순화하여 책봉체제 일원론으로 설명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³⁾ 또한 국제관계를 명분과 실리의 관점에서 조공국의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거나⁴⁾ 각국의 역학관계에 따른 세력균형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 이는 중국과 동아시아 제국 간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동아시아 각국 간의 다자적 국제관계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 왕조와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국제질서의 흐름과 각국의 내부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⁶⁾

기왕의 나당관계사 연구는 중국왕조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신라의 내부정황에 주목하고, 나당관계의 변화의 추이를 밝혀내었다.⁷⁾ 또한 최근의 7~8세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외교관계로 이해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⁸⁾ 신라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간과하고 신라 중심의 대당관계에 매몰되거나, 동아시아 제국 간의 역관계에 치중하여 각국 내부의 상황과 변화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나당관계의 연구 역시 동아시아 정세의 대외적인 요인과 신라와 당 각국의 대내적인 요인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당관계는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뉜다. 7세기의 전쟁은 648년의 나당동맹으로 시작하여 660년의 백제 멸망, 668년의 고구려 멸망을 초래하였고,

2) 西嶋定生, 앞의 책, 1962; 西嶋定生, 『序說—東アジア世界の形成と冊封體制—』,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0; 金子修一,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東京: 名著刊行, 2001.

3) 金翰奎, 『7-8世紀 東아시아 世界秩序의 構造的 特性과 그 運營體制的 機能』, 『진단학보』 88, 1999, pp.399~402; 여호규, 『6~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며』, 『역사와 현실』 61, 2000a, pp.19~30.

4) 全海宗, 『韓中 朝貢關係 概觀』, 『東洋史學研究』 1, 1966;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성격』, 『東洋學』 11, 1981.

5) 盧泰敦,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방학지』 44, 1984; 盧重國,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동방학지』 49, 1985.

6) 여호규, 앞의 논문, 2006a, pp.19~25.

7) 申滢植, 『統一新羅의 對唐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7;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연민수·이기동 외,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11.

8) 권덕영, 『羅唐交涉史에서의 조공과 책봉』,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6; 여호규,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현실』 61, 2006b; 김종복, 『남북국(南北國)의 책봉호(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현실』 61, 2006;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26, 2016; 『8세기 초 발해·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신라의 외교전략-나당간의 국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6, 2017;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신라의 대외정책 비교』, 『新羅史學報』 42, 2018; 曹凡煥, 『新羅 中代의 동아시아 政策과 對應』, 『신라사학보』 45, 2019.

674년 나당전쟁으로 종결하였다. 이후 당과 신라는 648년부터 674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동맹 체결과 파기의 양극단의 관계를 맺었다. 7세기 동아시아의 전쟁과 외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맞물린 결과였다.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 중대의 나당관계를 신라왕과 왕실여성의 책봉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책봉호를 중심으로 7세기 이후의 당-신라의 관계를 각국의 대내적 상황과 대외적 정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신라가 나당관계를 내부의 통치에 활용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7세기의 나당관계가 변화한 국제적 계기를 살펴보고, 신라 중대의 신라왕 책봉호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라 중대에 당이 신라의 왕비와 왕모를 책봉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나당관계를 당의 대신라정책과 신라의 대당외교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의 신라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신라왕의 책봉호와 나당관계의 변천

1. 당의 한반도 정책과 나당관계의 변화

신라가 처음으로 책봉을 받은 시기는 진흥왕 26년(565)이다. 진흥왕은 北齊로부터 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으로 책봉을 받았다.¹⁰⁾ 이후 진평왕 16년(594)에 上開府 樂浪郡公 新羅王으로 책봉되었고,¹¹⁾ 46년(624)에 柱國 樂浪郡公 新羅王으로 제수되었다.¹²⁾ 또한 632년에 진평왕이 죽자 左光祿大夫로 추증되었다.¹³⁾ 594년에 진평왕이 수문제로부터 받은 上開府는 上開府儀同三司이다. 北周 武帝 때 처음 두어졌던 勳官號로, 독자적인 관청과 관원을 둘 수 있는 開府 위에 증치한 관작이었다. 수문제는 581년에 즉위하였는데, 즉위한 해에 백제의 위덕왕을 上開府儀同三司 帶方郡公으로

9) 金瑛河,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7세기 동아시아의 國際戰과 사회변동의 一環』, 『韓國 古代史研究』 16, 1999; 『新羅中代社會研究』, 一志社,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경제와 전쟁-신라의 백제통합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38, 2016.

1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 『北齊書』 卷7, 武成 河清 4년 2월조.

1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6년; 『隋書』 卷81, 東夷列傳 新羅; 『通典』 卷185, 邊防 新羅.

1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6년; 『資治通鑑』 卷190, 高宗紀; 『冊府元龜』 卷963, 外臣部 冊封 武德 7년조에는 나랑군공이라고 하였고, 『舊唐書』 卷199, 新羅傳; 『新唐書』 卷220, 新羅傳에서는 樂浪郡王이라고 하였다. ‘郡公’은 正二品이고, ‘郡王’은 從一品으로 더 높은 爵號이다.

1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54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新唐書』 卷220, 新羅傳.

책봉하였다.¹⁴⁾ 또한 수문제는 고구려의 영양왕이 590년에 즉위하자, 上開府儀同三司 遼東郡公으로 책봉하였는데, 영양왕이 591년에 表를 올려 謝恩하고 王으로 책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수문제가 책봉해주었다.¹⁵⁾

수문제는 백제 위덕왕을 上開府儀同三司 帶方郡公 百濟王으로, 신라 진평왕을 上開府 樂浪郡公 新羅王으로, 고구려 영양왕은 上開府儀同三司 遼東郡公 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이처럼 수대에 책봉호의 형식이 ‘훈관(勳官)+군공(郡公)+본국왕(本國王)’으로 정형화되었는데, 이는 당초까지 지속되었다.¹⁶⁾ 고구려, 신라, 백제의 책봉호로 보아, 수문제가 각국의 지리적 위치를 한사군과 결부하여 이해하였고, 수와 한반도 각국의 관계를 지리상의 원근이나 친소로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태종이 626년에 즉위하고, 그 직후부터 주변으로 세력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나당관계가 급변하였다. 계기가 된 사건은 정관 원년(627)에 발발한 동동궐 지배 하의 鐵勒 부족들의 반란이었다. 당태종은 629년에 李世勣, 李靖에게 공격을 명하였고, 630년에 동동궐을 멸망을 시킨 후, 靺廝州를 설치하였다.¹⁷⁾ 이후 정관 14년(640)에 서역의 古昌國을 멸망시키고 안서도호부를 설치하였고,¹⁸⁾ 또한 정관 18년(644) 9월에 焉耆를 평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이세적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¹⁹⁾ 당태종의 군대가 요하 동쪽의 고구려성들을 연이어 함락시키고, 6월 안시성에 이르러 전투를 하던 중 9월에 설연타가 당의 북변을 공격하자 같은 달에 안시성에서 군대를 철수하였고, 이듬해인 646년 정월에 설연타를 공격하여 결국 평정하였다.

이처럼 당태종은 주변국을 평정하고, 기미주를 세워서 영역화하고자 하였다.²⁰⁾ 당태종의 세력 확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왕조가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양상은 북방, 서방, 동방의 순이었다.²¹⁾ 당태종의 세력 확장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었다. 반면 628년에 당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자 토번이 점차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토번은 당의 영향 하에 있던 토욕혼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고, 663년에 결국 멸망시켰다. 이로써 토번의 북쪽 변경과 당의 서쪽 변경이 직접 맞닿게 되었고,

14)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28년; 『隋書』卷80 百濟傳.

15)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원년; 『北史』列傳, 高句麗.

16) 여호규, 앞의 논문, 2006, p.38.

17) 鄭炳俊,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靺廝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43, 2018, pp.16~18.

18) 『資治通鑑』卷195, 정관 14년 8월조, 9월조.

19) 『資治通鑑』卷197, 정관 18년 9월조, 12월조.

20)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合과 大非川 戰鬪』, 『역사학보』 218, 2013, p.314.

21) 堀敏一, 『中國通史-問題史としてみる』, 講談社, 2000, pp.200~203.

이는 당조의 위협이 되었다.²²⁾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김춘추는 648년에 그의 아들 문왕과 당에 가서 당고종을 친견하고, 당의 청병외교를 성사시켰다.²³⁾ 이후 660년 백제의 멸망, 668년 고구려의 멸망, 663년 5월의 토욕혼 멸망 및 8월의 白江口 전투, 674~676년의 나당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전이 발발했던 것이다.

7세기에 당과 백제, 고구려, 신라, 토번, 왜까지 참전한 전쟁은 675년 9월에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676년 2월에 당이 안동도호부를 遼東古城으로,²⁴⁾ 웅진도독부를 建安古城으로 옮긴 후,²⁵⁾ 같은 해 11월에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고 당군이 철수하면서 종결되었다. 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유 중 하나는 토번의 위협이었다.²⁶⁾ 당이 한반도의 전쟁에 치중하여 토번이 토욕혼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치하였다.²⁷⁾ 토번은 676년 윤3월부터 과상적으로 당을 공격하였고, 678년 정월에 당이 반격하였으나 9월에 대패하였다. 이후 당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로 보아 당조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와 관련하여 당조의 한반도 전략의 전환의 배경을 알기 위하여 당조 내부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55년에 측천무후가 당고종의 황후로 책립되었다. 이후의 당의 대외정책을 고종과 측천무후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²⁹⁾ 고종의 치세기간과 측천무후의 치세기간의 대외정책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치세기간 중 사신 파견의 횟수로 볼 때, 당태종의 경우, 치세 23년 간 45건의 사신파견이 있었고, 당고종의 경우, 34년 간 17건의 사신파견이 있었다. 반면 측천무후의 경우, 20년 간 8건에 불과하다.³⁰⁾ 또한 674년에 측천무후가 올린 ‘意見十二條’가 주목된다. ‘意見十二條’의 3조를 보면, “전쟁을 멈추고[息兵] 도덕으로 천하를 교화한다”라고 하

22) 정병준, 앞의 논문, 2013, pp.319~320.

23)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년; 『舊唐書』卷199, 新羅傳; 『新唐書』卷220, 新羅傳; 『資治通鑑』卷199, 太宗貞觀 22년조 12월 계미조; 『冊府元龜』卷974, 外臣部, 褒異貞觀 22년 12월조.

24) 『唐會要』卷73, 安東都護府, 의봉 2년 2월조.

25) 『資治通鑑』卷202, 의봉 2년 2월 조.

26) 陳寅恪,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pp.133~139; 古畑徹, 『七世紀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1983;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pp.286~292;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p.240~242;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p.319.

27) 정병준, 『당의 한반도 정책과 대응』, 『신라사학보』 45, 2019, pp.142~144.

28) 정병준, 앞의 논문, 2019, pp.155~157.

29) Richard W.L. Guisso, *Wu Tse-Tien and the politics of legitimization in Tang China*, Washington Press Washington, 1978, pp.107~125.

30) 염경이, 『당 무후중종대 사신 파견과 그 외교적 역할』, 『인문과학연구』 18, 2007, pp.75~76.

였다.³¹⁾ 측천무후가 당고종에게 올린 12조의 의견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시행되었다. 674년에 측천무후가 올린 의견이 675년에 유인궤가 철수한 배경이었을 것으로 이해 하기도 한다.³²⁾

측천무후 치세기간의 외교정책에 대해 북방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부족, 토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동방에 대한 거의 절연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능동적이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³³⁾ 반면 측천무후가 민심을 얻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 즉 불교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기도 한다.³⁴⁾ 측천무후는 치세기간 동안 북방과 서방의 변경지대에 屯田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주변의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³⁵⁾ 670년대 측천무후의 외교정책은 세력 확장이 아니라 안정적 유지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7세기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당조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이후의 나당관계를 좌우하였다. 다음 표-1은 진흥왕부터 중대 왕들의 책봉호 일람표이다.

<표 1> 신라 중고기~중대왕의 책봉호 일람표

(전거: 『三國史記』新羅本紀(本紀), 『北齊書』, 『隋書』, 『舊唐書』(舊), 『新唐書』(新), 『資治通鑑』(通鑑), 『冊府元龜』(冊府), 『唐會要』(會要), 『通典』)

시기	왕명	기년	주체	수여	책봉호
중 고 기	진흥왕	26년(565)	북제 武成帝	책봉	使持節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
	진평왕	16년(594)	수문제	책봉	開府 樂浪郡公 新羅王
		46년(624)	당태종	제수	柱國 樂浪郡公 新羅王
		54년(632)	당고종	추증	左光祿大夫
	선덕왕	4년(632)		襲位	柱國 樂浪郡公(樂浪郡王) 新羅王
		16년(647)		추증	光祿大夫
	진덕왕	원년(647)		襲位	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31) 『新唐書』卷76, 后妃上, 高宗則天武皇后傳, “上元元年, 進號天后, 建言十二事. 一, 勸農桑 薄賦徭. 二, 給復三輔地. 三, 息兵, 以道德化天下. 四, 南北中尙禁浮巧. 五, 省功費力役. 六, 廣言路. 七, 杜讒口. 八, 王公以降皆習老子. 九, 父在爲母服齊衰三年. 十, 上元前勳官已給告身者無追覈. 十一, 京官八品以上益粟入. 十二, 百官任事久, 材高位下者得進階申滯. 帝 皆下詔略施行之”

32)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劉健明 編, 『黃約瑟隋唐史 論集』, 中華書局, 1997의 번역논문인 정병준, 차오링 역, 『武則天과 한반도 정세(黃約瑟)』, 『신라사학보』 35, 2015, p.232.

33) 葉敬이, 앞의 논문, 2007, p.76.

34) 黃約瑟, 저, 정병준, 차오링 역, 앞의 논문, 2015, pp.239~240.

35) 黃約瑟, 저, 정병준, 차오링 역, 앞의 논문, 2015, pp.241~243.

중 대	II		8년(654)		추증	開府儀同三司
		무열왕	원년(654)		책봉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문무왕	원년(661)		책봉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3년(663)		책봉	雞林州大都督
		신문왕	원년(681)	무축천	襲位	開府儀同三司 雞林州大都督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효소왕	원년(692)		襲位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III	성덕왕	원년(702)	당현종	襲位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12년(713)		책봉	驃騎將軍 特進行左威衛大將軍 使持節大都督 雞林州諸軍事 雞林州刺史 上柱國 樂浪郡公 新羅王
			32년(733)	加授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	
			36년(737)	추증	太子太保	
		효성왕	2년(738)	襲位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경덕왕	2년(743)	襲位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혜공왕	4년(768)	당대종	襲位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표 1>을 보면, 신라왕은 선왕의 책봉호를 承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신라가 진흥왕 26년에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되었고, 진평왕 역시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 이어 즉위한 선덕왕 역시 선왕인 진평왕의 책봉호를 이어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³⁶⁾ 이처럼 진흥왕, 진평왕, 선덕왕이 낙랑군공으로 책봉되는데 반하여 진덕왕은 즉위 원년(647)에 주국 낙랑군왕으로 책봉되었다.³⁷⁾ ‘郡王’은 從一品이고, ‘郡公’은 正二品の 爵號이다. 선덕왕의 경우, 『삼국사기』와 『책부원귀』에는 낙랑군공으로 기록하였고,³⁸⁾ 『구당서』에는 낙랑군왕으로 기록하고 있다.³⁹⁾ 『삼국사기』는 외교 관련, 특히 견당사 파견 기사는 『책부원귀』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사서 轉載하는 경향이 있다.⁴⁰⁾ 『구당서』는 일괄적으로 ‘낙랑군왕’으로 기재

3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4년; 『冊府元龜』 卷963, 外臣部 冊封에서는 樂浪郡公이라고 하였고, 『舊唐書』 卷199, 新羅傳; 『新唐書』 卷220, 新羅傳에서는 樂浪郡王이라고 하였다.
 3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원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新唐書』 卷220, 新羅傳, 『資治通鑑』 卷197, 太宗 貞觀 22년조.
 38)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封冊.
 39) 『舊唐書』 卷199, 新羅傳.
 40) 전덕재, 『삼국사기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大丘史學』 120, 2015.

한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와 『책부원귀』의 ‘낙랑군공’이 신빙성이 높다.

진덕왕이 ‘낙랑군왕’으로 책봉된 것은 당의 한반도 전략과 신라의 외교가 맞물린 결과로 생각된다. 당과 신라는 각국이 처한 상황 하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1차적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왕조와 신라와의 관계, 즉 책봉과 조공으로 지속된 외교관계는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진덕왕이 책봉 받은 다음해인 648년에 김춘추는 당고종을 친견하여, 請兵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654년에 진덕왕이 죽자 從一品의 文散官인 開府儀同三司로 추증되었고, A-1)의 무열왕은 개부의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 또한 문무왕 원년(661)에 상주국으로, 3년(663)에 계림주대도독으로 책봉받았는데, 이는 문무왕은 11년(671)에 행군총관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에서도 알 수 있다. 문무왕은 설인귀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자신을 “계림주대도독 좌위대장군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신라왕”이라고 하였다.⁴¹⁾ 계림주대도독은 종2품으로, 당이 신라 영역을 명목상 당의 기미주로 편입한 데 따른 羈縻州官號이며, 좌위대장군은 정3품으로 당의 중앙군사조직인 16衛의 하나인 좌위의 지휘관이다. 또한 개부의동삼사는 종1품으로 文散官 중 최고직이며, 상주국은 정2품으로 최고 勳號이다.⁴²⁾

진평왕이 당태종으로부터 종2품의 柱國 책봉을 받은 이후, 선덕왕, 진덕왕, 무열왕은 주국의 훈위를 받았는데, 문무왕이 상주국을 받은 이후 신라왕들은 상주국으로 책봉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진덕왕이 신라군왕을 책봉받고, 무열왕이 개부의동삼사로 책봉받고, 문무왕이 계림주대도독 상주국으로 책봉받은 이후, 신라왕은 선왕의 책봉호를 승습하여 계림주대도독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신라왕”을 책봉받았다. 이와 같은 당의 신라왕 책봉호는 7세기의 당, 신라, 백제, 고구려, 왜, 토번 간의 역관계와 전쟁에 따른 당의 한반도 정책이 반영된 것이었다.

2. 효소왕 · 성덕왕의 책봉 배경과 의미

나당전쟁이후, 경색되었던 나당관계는 측천무후의 이민족 정책과 신라 중대왕실의 적극적인 唐制 수용과 맞물려 완화되었다. 681년에 신문왕이 즉위하자, 측천무후는 책봉사를 보내어 선왕에 이어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하

41)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42) 김종복, 앞의 논문, 2016, p.5.

였다. 또한 신문왕 역시 적극적으로 당제를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신문왕은 686년에 사신을 보내 『禮記』와 文章에 관한 책을 요청하였고,⁴³⁾ 측천무후는 담당관청에 명하여 길흉요례와 문관사림에 관한 글을 채택하여, 50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내주었다. 670년대 이후, 당조의 이민족 정책, 즉 전쟁이 아닌 禮로 이민족을 교화하여 통치하려는 정책과 신라 중대왕실의 적극적인 당제 수용 방침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나 692년에 측천무후가 김춘추의 묘호인 ‘太宗’이 당태종과 같으므로, 고치라고 요구하였고, 신문왕이 거절하자⁴⁴⁾ 당과 신라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신라와 당 사이의 국교는 효소왕 8년(699), 신라가 당으로 사신을 보내며 재개되었다.⁴⁵⁾ 효소왕에 이어 즉위한 성덕왕은 즉위 초부터 매년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후 나당관계는 호조를 보였다. 효소왕은 측천무후로부터 新羅王·輔國大將軍·行左豹韜尉大將軍·雞林州都督로 책봉받았고,⁴⁶⁾ 성덕왕은 702년에 즉위하면서 측천무후의 승인 하에 효소왕의 책봉호를 계승하였다. 신라 중대왕들의 책봉호의 변천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신라 중대 왕들의 책봉관련 사료이다.

- A-1) 태종무열왕 원년(654), 당에서 사신을 보내 符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왕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봉하였다.⁴⁷⁾
- 2) 문무왕 원년(661), 龍朔 원년에 春秋가卒하니, 조서를 내려 그의 아들 太府卿 法敏으로 뒤를 잇게 하여,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으로 삼았다.⁴⁸⁾
- 3) 신문왕 원년(681), 당고종이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官爵을 잇게 하였다.⁴⁹⁾
- 4) 효소왕 원년(692), 당 則天皇后가 吊祭에 사신을 보냈고, 이어서 왕을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에 책봉하였다.⁵⁰⁾

43)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6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4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12년.

45)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孝成王 8년;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46)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孝昭王 원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唐會要』 卷95, 新羅傳; 『資治通鑑』 卷205, 長壽 2년 2월 병자조;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冊封

4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元年; 『舊唐書』 卷199, 新羅傳; 『新唐書』 卷220, 新羅傳; 『資治通鑑』 卷199, 永徽 5년 윤 5월조;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冊封 永徽 5년 5월조.

48) 『舊唐書』 卷199, 新羅 龍朔 元年.

49)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神文王 원년; 『舊唐書』 卷5 開耀 원년 10월 丁亥條; 『唐會要』 卷95 新羅傳;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冊封; 『資治通鑑』 卷202 開耀 元年 10월 丁亥條.

5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孝昭王 원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唐會要』 卷95 新羅傳;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冊封; 『資治通鑑』 卷205 長壽 2년 2월 丙子條.

- 5) 성덕왕 원년(702), 당 측천무후는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위해 애도하고, 조회를 이틀간 멈추고, 사신을 보내 위문하면서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더하여 형의 將軍·都督의 호를 잇게 하였다.⁵¹⁾
- 6) 효성왕 2년(738), 봄 2월에 당현종이 성덕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左贊善大夫 邢璣를 홍려소경으로 삼아 보내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고, 太子太保를 추증하였다. 또 새로 왕위를 이은 임금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책봉했다.⁵²⁾
- 7) 경덕왕 2년(743), 당현종이 贊善大夫 魏曜를 보내 조문하고 제사하였다. 이어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전 임금의 관작을 잇게 했다.⁵³⁾
- 8) 혜공왕 4년(768), 당의 代宗이 倉部郎中 歸崇敬에게 御史中丞을 검직시켜 보내, 부절과 책봉 조서를 가지고 와 왕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 아울러 왕의 어머니 김씨를 大妃로 책봉했다.⁵⁴⁾

A의 사료는 신라 중대 왕들이 즉위한 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례이다. A-1)의 무열왕은 개부의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받았고, A-2)의 문무왕은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받았다. A-3)의 신문왕은 선왕의 관작을 잇고, 신라왕으로 책봉받았다. A-4)의 효소왕은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 계림주도독으로 책봉받았다. A-5)의 성덕왕은 형의 장군·도독의 호를 잇고, 신라왕으로 책봉받았다. A-6)의 효성왕은 개부의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받았고, A-7)의 경덕왕은 선왕의 관작을 이어받고, 신라왕으로 책봉받았다. A-8)의 혜공왕은 개부의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받았다. 이로 볼 때 新王은 先王의 官爵을 이어서 책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효소왕은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 계림주도독의 책봉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에 관한 책봉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효소왕은 692년에 선왕인 신문왕의 책봉을 승습하였는데, 신문왕이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을 책봉받은 기록이 없다. 책봉을 받은 시기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행좌표도위대장군은 정3품이다. ‘行’은 行守法에 의한 표기

5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聖德王 원년; 『舊唐書』卷199 新羅傳; 『唐會要』卷95 新羅傳; 『冊府元龜』卷964 外臣部 封冊; 『資治通鑑』卷207, 長安 3년 윤 4월조.

52)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효성왕 2년; 『舊唐書』卷9 本紀9 玄宗下 開元25年;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 『冊府元龜』卷975 外臣部 褒異; 『資治通鑑』卷214, 唐紀30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

5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2년;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 『唐會要』卷95 新羅.

5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 4년; 『舊唐書』卷199, 新羅傳; 『新唐書』卷220, 新羅傳; 『唐會要』卷95 新羅傳; 『冊府元龜』卷654, 外臣部 奉使部 廉慎條; 『冊府元龜』卷965 外臣部 封冊 永徽 5년 5월조.

로, 관품이 높고 관직이 낮을 경우는 ‘行’이라 하고, 반대의 경우는 ‘守’를 쓴다. 신문왕과 효소왕은 정2품의 보국대장군으로서 정3품의 좌표도위대장군을 받았기 때문에 ‘行’을 칭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豹韜尉는 ‘豹韜衛’의 오기이고, 당의 禁衛職이다.⁵⁵⁾ 隋代에 屯衛였고, 이후 당의 龍朔 연간(661~663)에 威衛로 개칭했다가 光宅 연간(684년 9~12월)에 豹韜衛라 하였다. 이후 神龍 연간(705~707)에 다시 威衛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行左豹韜尉大將軍의 책봉호는 당에서는 684~705년에 존재했던 칭호이고, 효소왕이 즉위한 해는 692년이므로, 신문왕은 684~692년 사이에 책봉받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국대장군은 정2품의 武散官으로, 종1품의 개부의동삼사보다 한 단계 낮다.⁵⁶⁾ 뿐만 아니라 보국대장군은 김인문이 받은 책봉호였다. 신문왕 10년(690)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측천무후가 김인문을 輔國大將軍 上柱國 臨海郡開國公 左羽林軍將軍으로 제수하였다.⁵⁷⁾ 김인문은 673년에 당고종이 문무왕 대신 신라왕으로 삼고자 한 적이 있었고, 이후 679년에 鎮軍大將軍 行右武威衛 大將軍에 전임되었다가 690년에 輔國大將軍 上柱國 臨海郡開國公 左羽林軍將軍에 제수되었다.⁵⁸⁾ 김인문은 효소왕 3년(694)에 당에서 죽었고, 이듬해인 695년에 신라로 운구되어 장사지냈다.⁵⁹⁾

A-4)의 사료대로 효소왕이 신문왕의 책봉을 승습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문왕은 적어도 684~692년 사이에 행좌표도위대장군을 책봉받고, 690~692년 사이에 보국대장군으로 책봉받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신문왕은 6년(686)에 견당사를 보내어 禮記와 文章에 관한 서적을 청하여 받았다. 같은 해에 건립된 청주 운천동신라사적비에 ‘垂拱二年’이라는 당의 연호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때 당의 正朔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⁶⁰⁾ 이후 신문왕 12년(692)에 신문왕은 측천무후가 태종의 묘호를 고치라고 한 요구를 거절하고, 같은 해 7월에 신문왕이 죽었다. 692년에 효소왕이 즉위하고, 측천무후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므로⁶¹⁾ 686년에 신문왕이 행좌표도위대장군을 加受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효소왕이 開府儀同三司가 아닌 輔國大將軍으로 강등되어 책봉을 받은 것은 692년에 태종 묘호를 개칭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55)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96, p.205.

56) 『新唐書』 卷46, 志36, 百官1, 尚書省, 兵部.

57)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58)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59)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60) 권덕영, 앞의 책, 1997, pp.43~45.

6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12년.

성덕왕은 702년에 즉위하였고, 측천무후의 승인 하에 효소왕의 책봉호를 계승하였다. 성덕왕은 즉위 후에도 여러 차례 책봉을 받았다. 다음은 성덕왕의 책봉 관련 사료이다.

- B-1) 성덕왕 원년(702), 당 측천무후는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위해 애도하고, 조회를 이틀간 멈추고, 사신을 보내 위문하면서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더하여 형의 將軍·都督의 호를 잇게 하였다.⁶²⁾
- 2) 성덕왕 6년(707), (당 중종이) 神龍 3년에 驃騎大將軍을 제수하였다.⁶³⁾
- 3) 성덕왕 12년(713), (당 현종이) 조서를 내려 왕을 驃騎將軍 特進 行左威衛大將軍 使持節 大都督 林州諸軍事 雞林州刺史 上柱國 樂浪郡公 新羅王에 책봉하였다.⁶⁴⁾
- 4) 성덕왕 32년(733) 가을 7월에 당 현종은 渤海靺鞨이 바다를 건너 등주로 쳐들어오자, 太僕員外卿 金思蘭을 [신라로] 귀국하게 하여, 왕에게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를 더 제수하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의 남쪽 도읍을 치도록 하게 하였다. [군사를 출병시켰는데] 마침 큰 눈이 한 자 넘게 쌓이고 산길이 험하여 절반이 넘는 병사들이 죽고 아무 공 없이 돌아왔다.⁶⁵⁾

B사료는 성덕왕이 책봉을 받은 기록이다 B사료에 의하면, 성덕왕은 702년에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위대장군 계림주도독으로 선왕인 효소왕의 책봉을 승습하였다. 이후 707년에 표기대장군을 제수받았는데, 보국대장군이 종2품인데 반해 표기대장군은 종1품으로 승진한 것이다. 또한 713년에 驃騎將軍 特進 行左威衛大將軍 使持節 大都督 林州諸軍事 雞林州刺史 上柱國 樂浪郡公 新羅王으로 책봉받았다. 特進은 정2품의 文散官이다. 行左威衛大將軍은 정3품으로 16위의 하나인 左威衛의 大將軍이고, 使持節은 독자적 군사권을 의미하며, 大都督 雞林州諸軍事는 독자적 권한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사지역, 雞林州刺史는 행정권을 각각 의미한다.⁶⁶⁾ 이후 성덕왕은 733년에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를 제수받았다.

B-1)~3)은 성덕왕을 책봉한 주체가 각각 다르다. B-1)에서 책봉한 이는 측천무후였고, B-2)는 당 중종, 그리고 B-3)은 당 현종이다. 당 중종은 683년에 고종이 죽자, 즉위하였다. 그러나 모후인 측천무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의 실질적인

62)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聖德王 원년; 『舊唐書』 卷199, 新羅傳; 『唐會要』 卷95 新羅傳;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封冊; 『資治通鑑』 卷207 長安 3년 윤 4월조.

63) 『唐會要』 95, 新羅傳.

6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2년.

65)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년.

66) 김종복, 앞의 논문, 2016, pp.15~16.

통치자는 측천무후였다. 나아가 690년에 측천무후는 국호를 당에서 周로 바꾸었고, 705년까지 15년간 황제로 통치하였다. 이후 705년에서야 중종은 국호를 다시 당으로 바꾸고, 실질적인 황제로서 재위할 수 있었다.

따라서 B-2)의 성덕왕 6년의 책봉은 당 중종이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수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 현종이 712년에 즉위하였는데, B-3) 성덕왕의 책봉은 당 현종이 즉위한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B-1)은 성덕왕이 즉위하면서 선왕의 책봉호를 承襲한 책봉이었고, B-2)와 3)은 각각 당 왕조의 상황에 따른 책봉, 즉 중종의 복위와 현종의 즉위와 관련한 恩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책봉의 배경이 B-1)은 신라 내부의 사정에 있었다면, B-2)와 3)은 당조 내부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B-4)는 당과 신라의 내부 사정이 아닌 외부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732년 7월에 발해말갈이 바다를 건너 登州를 공격해오자 당현종은 견당사로 입당해있던 신라인 金思蘭를 귀국시켜 성덕왕이 말갈의 남쪽 도읍을 치게 하였다.⁶⁷⁾ 즉 성덕왕 32년(733)에 성덕왕이 당으로부터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의 책봉을 받은 것은 발해의 등주 공격과 당의 신라 파병 요청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당은 성덕왕을 寧海軍使로 책봉하였는데, 이로 보아 신라가 해로로 파병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이는 성덕왕이 이듬해 734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승전보를 바치겠다고 표문을 올려 청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⁶⁹⁾ 이처럼 성덕왕대의 나당관계는 당 현종의 즉위, 발해에 대한 견제를 계기로 우호관계가 강화되었다.

발해의 건국과 흥기는 나당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698년 발해의 건국으로 인해 699년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가 재개되었고,⁷⁰⁾ 732년 9월 발해의 등주 공격으로 인해 신라와 당의 우호관계를 강화되었다.⁷¹⁾ 성덕왕 이후 신라-당 관계는 우호적이었고, 당과 신라 사이의 책봉호 授受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신라 중대의 나당관계는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전개된 것이었다. 즉 당과 신라 간의 조공-책봉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다.

6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 『三國史記』卷43 열전 金庾信 下; 『全唐文』卷284 張九齡篇「勅新羅王金興光書」.

68) 末松保和, 『新羅の郡縣制, 特にその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21, 1975;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2, 吉川弘文館, 1975 재수록, p.180.

6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3年; 『冊府元龜』卷973, 外臣部, 助國討伐 開元 22년조.

70)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孝成王 8年; 『冊府元龜』卷970 外臣部 朝貢.

71) 김종복, 앞의 논문, 2006, pp.63~71.

Ⅲ. 신라 왕실여성 책봉의 배경과 의미

신라 왕실여성의 책봉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⁷²⁾ 이들 연구는 신라 왕실여성이 당으로부터 책립을 받게 된 국내적 요인, 즉 당의 책립 배경으로써 신라 왕권, 왕실과 진골세력간의 관계, 책립의 과정으로써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 책립의 결과로써 왕실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당이 신라의 책립 요청을 수락한 국제적 계기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였다. 당이 신라의 왕실여성을 책립한 배경과 계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왕실은 진골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과 체제 정비가 필요했다. 중대 왕들은 당의 율령과 예제를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왕실의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의 필요는 나당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내부적 요건이 되었다. 또한 발해의 건국, 당현종의 즉위, 발해의 등주 공격 등은 당과 신라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외부적 요건이 되었다.

성덕왕은 재위 36년 간 총 46회의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견당사는 외교사절이자, 공적 무역의 매개자였고, 문화 교류의 통로였다. 성덕왕은 견당사 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나당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대내적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덕왕 이후 나당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이는 신라왕의 책봉 외에 신라의 왕실여성의 책봉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은 신라 중대의 왕실여성 책봉과 관련된 사료이다.

C-1) 태종무열왕 원년(654), 여름 4월에 왕의 죽은 아버지를 文興大王으로 추봉하고, 어머니를 文貞太后로 삼았다.⁷³⁾

2) 신문왕 3년(683), 5월 7일에 伊滄 文穎과 愷元을 보내 [김흠운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夫人으로 책봉하게 하였다. 그날 卯時에 波珍滄 大常·孫文, 阿滄 坐耶·吉叔 등을 보내 각자의 아내와 딸, 그리고 梁部和 沙梁部 두 부의 여인 각각 30명씩과 함께 [부인을] 맞아 오게 하였다. 부인이 탄 수레의 좌우에 시종과 관인 및

72) 이현주,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2015a;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2015b;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a;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新羅史學報』 42, 2018.

7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元年, “夏四月, 追封王考爲文興大王, 母爲文貞太后.”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 [수레가] 왕궁의 북문에 이르자 [부인은] 수레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⁷⁴⁾

- 3) 효소왕 2년(693), [또한] 부례랑을 봉하여 大角干 신라 재상의 관작명으로 삼고, [그의] 아버지 大玄 阿噲을 太大大角干으로 삼았다. 어머니 龍寶夫人은 沙梁部 鏡井宮主로 삼고 안상법사를 대통大統으로 삼았으며, 창고 관리 다섯 명은 모두 석방하여 관작을 각기 5급씩 올려주었다.⁷⁵⁾
- 4) 성덕왕 11년(712), 가을 8월에 金庾信의 아내를 夫人으로 봉하고 매년 곡식 천 석을 하사하도록 하였다.⁷⁶⁾
- 5) 성덕왕 19년(720), 3월에 伊滄 金順元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중략) 6월에 왕비를 왕후로 책봉하였다.⁷⁷⁾
- 6) 경덕왕, 왕은 玉莖의 길이가 8치나 되었다. 아들이 없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沙梁夫人으로 봉하였다. 후비 滿月夫人의 시호는 景垂太后이며 依忠 각간의 딸이었다.⁷⁸⁾

C-1)은 무열왕이 즉위한 후에 그의 부모를 문흥대왕과 문정태후로 추봉한 것으로, 왕모를 태후로 추봉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기록이다. C-2)는 신문왕이 즉위한 후에 김흠운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 의례를 유교식 친영의례로 거행하였다. 유교식 혼인 의례의 절차 중에 부인을 책립하였는데, 이는 ‘冊妃’에 해당한다. C-3)은 효소왕대에 부례랑과 그의 부모를 포상한 기록인데, 효소왕의 어머니인 용보부인을 경정궁주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이다. C-4)는 성덕왕이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책봉한 기록이다. C-5)는 성덕왕이 김순원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고, 6월에 왕비를 왕후로 삼았다는 기록이다. 또한 C-6)은 경덕왕이 왕비인 삼모부인을 출궁시키고,⁷⁹⁾ 사랑부인으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이다.

C-1), 2), 5)는 모두 왕실여성과 관련한 것으로, C-1) ‘追封A爲B’, C-2)는 ‘冊爲夫人’,

74)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3년. “五月七日, 遣伊滄文穎·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滄大常·孫文·阿滄坐耶·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媼各三十人, 迎來. 夫人乘車, 左右侍從·官人及娘媼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

75) 『三國遺事』卷3, 塔像4, 栢栗寺, “封郎爲大角干[羅之冢宰爵名], 父大玄阿噲爲大大角干. 母龍寶夫人爲沙梁部鏡井宮主, 安常師爲大統.”

76)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1년, “秋八月秋八月, 封金庾信妻爲夫人, 歲賜穀一千石.”

7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9년, “十九年春三月 三月, 納伊滄順元之女爲王妃……六月, 冊王妃爲王后.”

78)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王玉莖長八寸. 無子廢之, 封沙梁夫人. 後妃滿月夫人諡景垂太后, 依忠角干之女也.”

79) 『三國遺事』卷1, 王曆, 景德王.

C-5)는 ‘納A爲B’, ‘冊A爲B’라고 하였다. C-1)은 왕의 부모에 대한 추봉이다. 또한 C-2)의 ‘冊爲夫人’과 C-5)의 ‘納A爲B’는 중대의 왕실혼인이 유교식 혼인의례로 이루어졌고, 그 절차 중 ‘冊妃’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의례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⁰⁾ 즉 왕실여성은 ‘왕비’, ‘왕후’, ‘태후’ 지위에 ‘冊立’되었던 것이다.

반면 C-3), 4)는 진골귀족여성의 사례로, C-3)과 4) 모두 ‘封A爲B’라고 하였다. C-6)의 경덕왕의 전 왕비인 삼모부인은 왕실여성이었으나, 출궁되면서 강등되어 ‘封A’라고 하여 사랑부인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6)은 ‘封沙梁夫人’ 부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封三毛夫人爲沙梁夫人’의 축약된 표현일 것이다. C-6)의 왕비 출궁 기사와 관련하여 성덕왕대의 왕비 출궁 기사가 주목된다.

D-1) 성덕왕 15년(716), 成貞 [또는 嚴貞] 王后를 [궁에서] 나가게 하였는데, 채색 비단 5백 필, 田地 2백 결, 租 1만 석,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 집은 康申公의 옛 집을 사서 주었다.⁸¹⁾

D-2) 원성왕 원년(785), 3월에 前妃인 具足王后를 外宮으로 내보내고 租 3만 4천 석을 내렸다.⁸²⁾

위의 사료에 따르면, D-1)에서 성덕왕은 성정왕후를 출궁시키면서 채색비단, 전지, 조,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 D-2)의 원성왕 역시 선왕인 선덕왕의 왕비인 구족왕후를 출궁시키면서 외궁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조를 하사하였다. C-6)의 삼모부인 역시 출궁 당시에 거주지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댓가를 하사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D-1)의 성덕왕후와 D-2)의 구족왕후는 역시 출궁 시에 물질적인 보상 외에 왕후가 아닌 ‘부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즉 C-3)과 4), 6), D-1)과 2)는 왕실여성이 아닌 귀족여성으로서 지위와 물질적인 보상을 받은 기록이다. 이들 기록에서는 ‘封A爲B’라고 하였는데, 즉 이들은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田地와 宅, 또는 수조권 등을 하사받았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지위만 수여되는 경우는 ‘冊立’, 지위와 지역적 기반의 물질적 보상이 수여되는 경우는 ‘冊封’이었고, 전자의 경우는 왕실여성, 후자의 경우는 왕실여성외의 여성, 즉 귀족여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사료 C와 D로 보아, 신라는 당으로부터 책봉제를 수용하였고, 이를 상층 여성들, 즉 왕실여성과 귀족여성들에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왕비와 왕후를 책립하여 그

80) 이현주, 앞의 논문, 2015a.

81)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5年, “出成貞[一云嚴貞]. 王后, 賜彩五百匹·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 賜之.”

82)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成王 元年, “三月, 出前妃具足王后於外宮, 賜租三萬四千石.”

지위를 공식화하였고, 출궁으로 인해 왕실여성에서 귀족여성으로 강등당한 경우나 귀족여성의 포상 등에는 지위와 봉토에 해당하는 하사품을 하사하여 책봉하였다.

중대 왕실은 진골로서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왕실과 다른 진골귀족과의 구분이 대내적 선결과제였다. 중대 왕실은 ‘后’ 칭호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한화적 내정 개혁의 일환이었다. ‘왕후’ 칭호는 진골 출신이었던 중대 왕실이 다른 진골귀족들과 구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왕실여성과 진골귀족여성은 신분은 진골로서 같으나, 지위는 왕족과 귀족으로서 위상 차이가 생겨났던 것이다. 중대의 ‘왕후’ 칭호는 대외적으로는 7세기 동아시아국제전 이후의 중대 왕실의 자긍심을 표출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왕실과 진골귀족 간의 위상 차이를 명백히 하는 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중대 왕실이 위상을 확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책봉의 형식을 통해 왕실여성과 진골귀족여성 간의 위상 차이를 제도화하였고,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⁸³⁾

또한 신라 중대에 당조가 신라왕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실여성도 책봉한 사례가 2건이 보인다. 하나는 효성왕대의 신라왕비 책봉이고, 다른 하나는 혜공왕대의 신라왕대비 책봉이다. 효성왕비가 책봉된 사실은 『삼국사기』, 『新唐書』, 『唐會要』, 『冊府元龜』에 실려 있다. 당으로부터 신라의 왕실여성의 책봉 받은 사례는 효성왕대가 최초이다. 다음은 관련 기록이다.

- E-1) 효성왕 2년(738), 당이 사신을 보내어 조칙으로 王妃 朴氏를 책봉하였다.⁸⁴⁾
 2) 효성왕 4년(740), 봄 3월에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夫人 金氏를 책봉하여 王妃로 삼았다.⁸⁵⁾
 3) 조금 후에 그 처 朴氏를 책봉하여 妃로 삼았다.⁸⁶⁾
 4) (開元) 28년, 承慶妻 朴氏를 책봉하여 新羅王妃로 삼았다.⁸⁷⁾
 5) 開元 28年, 3月癸卯 新羅國王 金承慶의 妻 金氏를 책봉하여 新羅王妃로 삼았다.⁸⁸⁾

사료 E는 당이 효성왕비를 책봉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E-1)과 2)는 『삼국사기』의 기록이고, E-3)은 『신당서』, E-4)는 『당회요』, E-5)는 『책부원귀』의 기록이다. 그런데 사료

83) 이현주, 앞의 논문, 2015a, pp.258~259.

84)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孝成王 2년.

85)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孝成王 4년.

86)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傳 新羅.

87) 『唐會要』 卷9,5 新羅傳, 開元 28년.

88) 『冊府元龜』 卷975, 外臣部20, 褒異2.

의 기록이 다소간 상이한데, 특히 당이 신라왕비를 책봉한 횟수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는 738년과 740년의 2차례라고 하였고, 『신당서』, 『당회요』, 『책부원귀』는 각각 1차례라고 하였다. 『신당서』는 왕비 책봉 시점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조금 후에’라고 하여 신라왕과 신라왕비의 책봉 시점이 같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당회요』, 『책부원귀』는 개원 28년, 즉 740년에 책봉하였다고 하였다. E-2), 4), 5)는 신라왕비 책봉이 740년이라고 하였다. 효성왕은 738년에 책봉되었는데, E-3)으로 보아 효성왕비가 책봉된 시점은 그 이후로 여겨진다. 740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E-1)의 738년 책봉 기사를 제외하고는 E-2), 3), 4), 5)는 신라왕비 책봉 시점이 740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740년에 책봉된 신라왕비는 효성왕이 3년(739)에 妃로 맞아 아들인 伊滄 순원의 딸인 혜명이었을 것이다.⁸⁹⁾ 효성왕에게는 박씨왕비, 후궁, 김씨왕비(혜명) 등의 여러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들 중 혜명은 당으로부터 신라왕비 책봉을 받음으로써 ‘正妃’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성덕왕대에 대당외교가 활발해진 결과 唐制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당시 唐制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김순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왕비세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⁹⁰⁾

이처럼 당이 이례적으로 신라왕비를 책봉한 것은 신라측의 요청과 당조의 수락에 의한 것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책봉의 배경은 다음의 신라왕대비의 책봉에서도 보인다. 혜공왕대에 혜공왕의 모후인 만월태후의 신라왕대비 책봉이 있었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혜공왕 4년(768), 당나라 代宗이 倉部郎中 歸崇敬에게 御史中丞을 겸직시켜 보내 부절과 책봉조서를 가지고와 왕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왕의 어머니 김씨를 大妃로 책봉하였다.⁹¹⁾

위의 사료는 만월태후가 당으로부터 大妃로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이다. 『신당서』, 『唐會要』, 『책부원귀』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⁹²⁾ 『舊唐文』에 실린 신라왕대비를 책립하는 책문을 보면, 당의 代宗이 『春秋』의 뜻에 의거하여 그 어머니에게 尊號를 더한다고 하였다.⁹³⁾

89) 이현주, 앞의 논문, 2015b, pp.243~247.

90) 이현주, 앞의 논문, 2015b, pp.259~261.

91)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惠恭王 4년, “唐代宗遣倉部郎中歸崇敬, 兼御史中丞, 持節齋冊書, 冊王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兼冊王母金氏爲大妃.”

92) 『新唐書』 卷220, 新羅傳; 『唐會要』 卷95, 新羅傳; 『冊府元龜』 卷654, 奉使部 廉慎條; 『冊府元龜』 卷965 外臣部 封冊條.

만월태후가 ‘대비’ 책봉을 받은 것은 당이 신라 왕실여성을 책봉한 두번째 사례이자, 신라왕의 왕모를 책봉한 첫 번째 사례이다. 당이 ‘신라왕대비’를 책봉한 배경으로, 『구당서』와 『책부원귀』에서 신라가 당에 김은거를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冊命을 청하였다고 하였다.⁹⁴⁾ 즉 신라가 신라왕대비 책봉을 요청하였고, 당이 이와 같은 요구를 수락한 것이었다.

어린 혜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던 만월태후는 당의 책봉을 통해 통치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만월태후는 신라의 정치적 여건에 의해 당의 책봉호인 ‘대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섭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⁹⁵⁾ 신라 중대에 이루어진 당에 의한 신라 왕실여성의 책봉, 즉 효성왕대의 신라왕비 책봉, 혜공왕대의 신라왕대비의 책봉의 배경은 중대왕실과 진골세력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이 신라의 책봉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왕조는 冊封·羈縻·互市 등의 수단을 통해 주변국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국제결혼, 그 중에서 공주의 降嫁 역시 주변국을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이민족의 시집간 중국의 황실의 공주를 和蕃公主라고 하는데, 화번공주의 강가는 그 자체로 중국왕조의 외교정책이었던 것이다.⁹⁶⁾ 화번공주의 강가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화친과 견제의 수단이었다.

반면 당의 신라왕비, 신라왕대비의 책봉은 당이 아닌 신라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효성왕의 왕비를 책봉한 주체는 당 현종이었다. 성덕왕은 적극적인 대당외교를 펼쳤다. 신라 중대왕권의 당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와 당 내부의 잦은 정권 교체는 나당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신라와 당, 각국의 내부적 요인이었다. 또한 발해의 위협과 견제는 신라와 당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당 현종은 성덕왕대의 신라를 君子の 나라로 칭하였다. 하정사인 김지량을 통해 보내는 조서에 신라에 대해서 “仁義의 나라라고 하며, 文章과 禮樂이 君子の 품모가 있다”고 하였다.⁹⁷⁾ 또한 성덕왕이 죽고, 그를 이은 효성왕을 책봉할 때도 책봉사인 형숙에게 신라에 대해서 말하며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일컬어지고, 자못 글을 잘 알아 중국과 비슷함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⁹⁸⁾ 즉 당현종과 성덕왕 간의

93) 『全唐文』 卷785, 『冊新羅王太妃文』; 『唐大詔令集』 卷129, 『冊新羅王太妃文』.

94) 『舊唐書』, 東夷列傳, 新羅; 『冊府元龜』 卷972, 外臣部17, 朝貢5.

95) 이현주, 앞의 논문, 2017a;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여성과 역사』 27, 2017b.

96) 藤野月子지, 정병준역, 『中國 古代의 國際結婚』,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pp.519~522.

97)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0년.

우호적인 관계는 신라가 中華와 유사한 君子의 풍모가 있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이 유화책의 일환으로 효성왕대 신라의 책봉 요청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당현종 치세기간인 755년 12월부터 763년 2월까지 일어난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다. 755년의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756년에 변진에게 재정과 군사를 독립시켰고, 지방관의 임명권을 부여하였는데,⁹⁸⁾ 이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점차 고착화되었다.¹⁰⁰⁾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는 변경뿐만 아니라 당의 內地에도 증치되었고, 권한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안사의 난은 당의 국력을 소모시켰고, 당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약화시켰다.

혜공왕의 왕모를 책봉한 주체는 당대중이었다. 당대중은 황태손으로서 조부인 당현종과 함께 반란을 피해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반란이 끝나자 장안으로 돌아왔다. 당대중은 762년 부왕인 당숙종이 죽자 즉위하였는데, 안사의 난이 끝난 이후, 강한 변진으로 인한 지방통제력의 약화, 토번의 공격, 파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란 등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당 내부의 상황은 신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라 성덕왕과 당현종의 치세 이후로 견고해진 나당관계, 신라 내부의 왕권 강화, 당 내부의 통치력 약화의 정황은 신라의 책봉 요청과 당조의 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당이 신라 왕실여성을 책립한 것은 신라의 요청을 당이 수락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라는 당의 책봉을 통해 지위를 공식화하였는데, 이는 대당관계뿐만 아니라 신라 내부의 정치적 역관계, 즉 왕실과 귀족세력, 귀족세력들간의 정치적 알력에도 활용하였다. 책봉을 통해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당의 ‘신라왕비’와 ‘신라왕대비’ 책봉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라는 대당외교를 대내적인 정치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실여성이 당의 책립을 받은 것은 대내적으로는 중대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성덕왕 이후의 견고한 나당관계, 당 내부의 통치력 약화에 의한 것이었다.

98)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孝成王 2년.

99) 『資治通鑑』卷28, 肅宗至德元載條.

100) 李宗燮, 『唐代 中央과 沿岸 蕃鎮의 關係-對外業務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0, 2007, pp.93~94.

IV. 맺음말

7세기 동아시아의 전쟁과 외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맞물린 결과였다. 나당전쟁이후, 경색되었던 나당관계는 670년대 당조의 이민족 정책 변화와 신라 중대왕실의 적극적인 唐制 수용과 맞물려 완화되었다. 성덕왕 이후, 나당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중대왕실의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의 필요는 나당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내부적 요건이 되었다. 또한 발해의 건국, 당현종의 즉위, 발해의 등주 공격 등은 당과 신라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외부적 요건이 되었다. 나당관계의 외교방식인 조공-책봉관계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성덕왕은 재위 36년 간 총 46회의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견당사는 외교사절이자, 공적 무역의 매개자였고, 문화 교류의 통로였다. 성덕왕은 견당사 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나당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덕왕 이후 나당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이는 신라왕의 책봉 외에 신라의 왕실여성의 책봉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책봉제를 수용하였고, 이를 상층 여성들, 즉 왕실여성과 귀족여성들에게도 적용하였다. 왕비와 왕후를 책립하여 그 지위를 공식화하였고, 출궁으로 인해 왕실여성에서 귀족여성으로 강등당한 경우나 귀족여성의 포상 등에는 지위와 봉토에 해당하는 하사품을 하사하여 책봉하였다. 이처럼 중대 왕실은 책봉의 형식을 통해 왕실여성과 진골귀족여성 간의 위상 차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신라 중대에 당조가 신라왕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실여성도 책봉한 사례가 2건이 보인다. 하나는 효성왕대의 신라왕비 책봉이고, 다른 하나는 혜공왕대의 신라왕대비 책봉이다. 당이 신라왕비를 책봉한 것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에 의한 신라 왕실여성의 책립은 신라가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요청했고, 이를 당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당이 신라왕비와 왕대비를 책립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중대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성덕왕 이후의 견고한 나당관계, 당 내부의 통치력 약화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史記』
『北齊書』 『隋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唐會要』
『全唐文』

2. 단행본

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權憲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申潁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연민수, 이기동 외,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11.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7.
西嶋定生,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三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東京: 岩波書店, 1962.
西嶋定生,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0.
金子修一,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東京: 名著刊行, 2001.
堀敏一, 『中國通史-問題史としてみる』, 東京: 講談社, 2000.
藤野月子, 『王昭君から文成公主へ-中國古代の國際結婚』, 九州: 九州大學出版會, 2012.
陳寅恪,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Richard W.L. Guisso, *Wu Tse-Tien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in Tang China*,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Program in East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s, 1978.

3. 연구 논문

- 金瑛河,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7세기 동아시아의 國際戰과 사회변동의 一環』,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신라의 백제통합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38, 2016.
- 金翰奎, 『7-8世紀 東아시아 世界秩序의 構造的 特性과그 運營體制的 機能』, 『진단학보』 88, 1999.
- 권덕영, 『羅唐交涉史에서의 조공과 책봉』,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6.
- 盧重國,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동방학지』 49, 1985.
- 盧泰敦,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방학지』 44, 1984.
-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성격』, 『東洋學』 11, 1981.
- 여호규, 『6~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며』, 『역사와 현실』 61, 2006.
- 여호규,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2006.
- 김종복, 『남북국(南北國)의 책봉호(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2006.
-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26, 2016.
- 김종복, 『8세기 초 발해·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신라의 외교전략-나당간의 국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6, 2017.
-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大丘史學』 120, 2015.
-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신라의 대외정책 비교』, 『新羅史學報』 42, 2018.
- 鄭炳俊,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靺鞨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43, 2018.
- 정병준, 『吐蕃의 吐谷渾 併呑과 大非川 戰鬪』, 『역사학보』 218, 2013.
- 정병준, 『당의 한반도 정책과 대응』, 『신라사학보』 45, 2019.
- 정병준, 차오링 역, 『武則天和 한반도 정세(黃約瑟)』, 『신라사학보』 35, 2015.
- 藤野月子지, 정병준 역, 『中國 古代의 國際結婚』,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曹凡煥, 『新羅 中代의 동아시아 政策과 對應』, 『신라사학보』 45, 2019.
- 염경이, 『당 무후중종대 사신 파견과 그 외교적 역할』, 『인문과학연구』 18, 2007.
-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2015.

- 이현주,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2015.
-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2015.
-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
- 이현주,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여성과 역사』 27, 2017.
-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新羅史學報』 42, 2018.
- 李宗燮, 「唐代 中央과 沿岸 蕃鎮의 關係-對外業務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0, 2007.
-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劉健明 編, 『黃約瑟隋唐史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7.
- 西島定生, 『西島定生東アジア史論集 第三卷 -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東京: 岩波書店, 2002.
- 末松保和, 「新羅의 郡縣制, 特にその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1, 1975.
- 古畑徹, 「七世紀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1983.

■ 논문투고일 : 2020. 1. 12 ■ 심사완료일 : 2020. 2. 4 ■ 게재확정일 : 2020. 2. 16

■ Abstract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Appointment titles of the King and Queen in the Shilla Dynasty Middle-Age period

Lee, Hyun-ju*

This study examines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Appointment titles received by the king and queen of Shilla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The war and diplomacy in East Asia in the 7th century were the result of conflicting interests of East Asian countries. After the Natang War (羅唐戰爭), the Tang Dynasty'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hifte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7th century, and chang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Tang Dynasty, later influenced the Shilla-Tang relationship (羅唐關係).

Since the royal family of the Shilla Kingdom ascended to the throne as a true skeleton, it needed a justification and system maintenance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of the Shilla Kingdom and overhaul the system were an internal conditions to maintain a friendly, lush relationship. In addi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聖德王), the accession of Tang's Hyeonjong (唐玄宗), the founding and attack of the Balhae (渤海) were extern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Shilla were established.

Since King Seongdeok (聖德王), the Shilla-Tang relationship (羅唐關係) has been stable. This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of Shilla. In other words,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朝貢冊封關係) between the Tang and Shilla was a political act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King Seongdeok dispatched a total of 46 Tang temples over the 36 years of his reign, which were diplomatic envoys, intermediates in public trade and channels for cultural exchanges. King Seongdeok wanted to strengthen the Tang's external friendly relations through the dispatch of Tang officials, and to accept the Tang's institutions and cultural properties to overhaul the

* Ajou University, Instructor

system and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internally. Since King Seongdeok's reign, the Shilla-Tang relationship (羅唐關係) have become closer, and this is why Shilla's royal women's Appointment title is performed in addition to the Shilla king's.

The Shilla accepted the Installation System (冊立體系) from the Tang and applied it to upper-class women, namely royal women and aristocratic women. The queen and the queen were established, and in cases where they were demoted from royal women to aristocratic women due to their departure, or the reward of aristocratic women, they were bound with a servant's articles corresponding to their status and their heritage. As such, the royal family has institutionalized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royal women and aristocratic women. Through this, we wanted to raise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and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In the middle of the Shilla Dynasty, there were two cases in which the Tang dynasty took up not only the Shilla king but also the royal woman of Shilla. One is the Queen of King Hyoseong (孝成王妃), and the other is Queen mother of King Hyekong (惠恭王大妃) of Shilla. The Tang's seizure of the Shilla's queen was unusual compar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Tang's establishment of the Shilla queen and the queen mother was internally caused by political opposition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Also externally, it was due to the solid Shilla-Tang relationship (羅唐關係) between the post-king Sungduk and the weakening of the Tang's ruling power within. This led to Shilla's request for the royal woman's Installation title (冊立號) and the acceptance of the Tang dynasty.

Keyword ●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Shilla-Tang relationship, Installation System, King Seongdeok, Appointment title, King of Shilla, Queen mother, Queen, royal women, aristocratic women